

지역 소식통

부안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부안군은 14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안군수를 포함한 5급이상 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의무화된 고위직 공무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안군은 2024년 상반기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반기는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허정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위촉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례 중심의 성매매·가정폭력의 실태 및 유형, 조기발견과 예방 위한 실천방안 등에 대해 교육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조직 내 관리자의 올바른 생각과 행동이 민주적이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오지마을 찾아가는 달리는 학습버스 운영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과 함께 교육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학습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김제시, 부안군과 함께 '전북에서 만나는 특별한 로컬배움터'를 주제로 교육부 주최 2024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 특성화 부문 컨소시엄 공모에 선정됐다.

평생학습 환경이 부족한 읍면마을 30개소를 순회하며 원예테라피, 수제청만들기, 목공, 우드 체험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향후 로컬공방형 배움터 지원사업 등으로 모든 연령과 계층이 경제와 공간의 장벽을 허물고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달리는 학습버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교육 기회를 폭넓게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51회 고창모양성제 성료

축제에 역사성·즐거움·어울림 담아 전국서 20만여명 이상 찾아

'제51회 고창모양성제(9~13일)'가 MZ세대를 비롯한 남녀노소의 참여를 이끌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14일 고창군은 이번 모양성제 기간 전국에서 20만 여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2개월 뒤 빅데이터 용역을 통해 최종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축제기간 내내 화창한 날씨와 3일의 휴일 등을 감안했을 때 지난해에 비해 30%이상의 방문객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올해 모양성제는 반백년 모양성제의 전통과 역사 위에 새로운 MZ세대의 감성을 엮은 온고지신이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공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선시대 한량을 테마로 다양한 모습으로 분장한 연기자와 스텝 투어형식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는 '슬기로운 한량생활', 이색적인 힐링 프로그램인 '당대리기 대회', '모양도화서', '모양찰학관' 등 젊은 세대 감성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젊은 연인들이 다수 참여해 축제 분위기가 한층 짙어졌다.

또한 7년만에 열린 전국노래자랑에도 5000여명의 군민과 방문객이 몰려다. MC합희사의 재치있는 입담과 가

수 안성훈 강해연, 지원이 배진아, 이현승 등 인기가수들이 총출동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외에도 '고창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는 주민과 관광객 1000여명이 한복을 곁에 차려 입고 성곽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성 밝기 이후에는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며 돌면서 하나 된 모습을 연출해 장관을 이뤘다.

축제장의 짜임새 있는 시설배치와 행사장 곳곳의 쉼터 설치도 눈에 띄었다. 간식부스 앞 파라솔 설치, 신재효 관소리공원까지 확대한 소무대와 축성참여 지자체와 14개 읍면의 홍보관에도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고창꽃정원은 이번 축제기간 최고의 포토존으로 사랑받았다. 많은 이들이 포토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유튜브에서 시원한 커피한잔의 여유를 즐겼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면서 애견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변산해수욕장의 붉은노을과 함께한 2024 부안붉은노을축제가 지난 13일 성황리 막을 내렸다.

2024 부안붉은노을축제 마무리

레드와인페스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 9만7000여명 방문

변산해수욕장의 붉은노을과 함께한 2024 부안붉은노을축제가 지난 13일 성황리 막을 내렸다.

이번 2024 부안붉은노을축제는 레드와인페스타, 붉은노을 재즈 페스티벌, 제2회 부안붉은노을 동요제, 스카이갤러리 등 붉은노을과 어울리는 컨셉으로 축제장을 찾은 9만 7천여명의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물했다.

이번에 백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레드와인페스타는 색다른 공간 연출을 통해 와인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와인과 함께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프리미엄존에서의 다양한 페어링 안주는 방문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붉은노을 재즈 페스티벌'은 국내에서 활동중인 재즈 뮤지션들이 감미로운 선율에 맞춰 다양한 곡을 선보여 변산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분위기 속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감성적인 축제장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제2회 부안붉은노을 어린이 동요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린이들의 싱그러운 목소리가 변산해수욕장을 가득 채워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임을 확인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도한 '바다위 불꽃놀이'는 광활한 바다위에서 펼쳐지는 만큼 마치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느낌을 연출해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종문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장은 "이번 2024 부안붉은노을축제는 와인, 재즈 그리고 붉은노을이라는 주제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했다"며 "앞으로 부안붉은노을축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당부

"각 부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

이학수 정읍시장은 14일 영상회의를 갖고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단계에서 각 부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부서장이 적극행정을 추진



해야 하며, 모든 직원들이 지역발전에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국회 예산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각 부서가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예산 확보가 시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편리함에 더한 따뜻함... 정읍시,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

정읍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 선정돼 인증 현판을 받게 됐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서류 심사와 민원실 공간 서비스, 체험, 만족도 등 4개 분야에서 총 2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선정

됐다.

인증기간은 오는 11월 24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지된다.

시는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문 교체, 안내데스크 신설 등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민원인 전용 컴퓨터와 복사기, 인바디 측정기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한 것이다.

또한 민원취약계층을 위해 안내도우

미를 배치하고 휠체어, 영유아 의자,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점자안내 책자 등 각종 보조기구를 비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매주 화요일 운영되는 여권 아간민원실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이학수 시장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민 추천 받는다

정읍시가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오는 22일까지 시민 추천을 받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공직 내 적극적인 봉사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5명의 우수공무원이 선발됐으며, 하반기에도 5건 내외의 우수 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포상금을 증액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팀 단위로도 선발해 도전적인 시도를 더욱 장려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오는 2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의 소통 창구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민추천 게시판의 서식을 참고해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jseo214@korea.kr), 팩스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추천된 우수사례는 온라인 투표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 최종 선발은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적극행정에 힘을 공무원을 추천해 주셔서 정읍 행정 발전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